



전은 지역사랑봉사단, 남부노인복지센터에 성금

JB금융그룹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이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세대 간 나눔을 실천했다.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공동단장 박춘원 은행장·정원호 노조위원장)은 24일 전주남부노인복지센터에 지역사랑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남부노인복지센터가 어르신들이 지역 아동을 위해 직접 선물을 준비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보호자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세대 간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안한 '전북은행이 함께하는 내리사랑, JB신생아 첫걸음' 사업이 선정되면서 이뤄졌다.

남부노인복지센터는 지원금으로 어르신 봉사단과 함께 크레파스, 아기 양말, 가제 손수건, 베이비오일, 에코백 등으로 구성된 'JB신생아 선물꾸러미' 150개를 직접 제작했다.

제작된 선물꾸러미는 주민센터 등을 통해 출생신고 대상 아동과 부모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윤현식 남부노인복지센터장과 김성군 삼천3동장, 정원호 전북은행 노동조합 위원장, 노조 간부, 박영기 전북은행 삼천동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 대학생 서포터즈 6기 해단식 개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은 2026년도 대학생 서포터즈 6기 해단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3월 선발된 25명의 대학생들은 5개월간 전북은행의 브랜드 이미지를 알리고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유튜브 등 SNS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특히 도내 곳곳을 찾아 전북은행의 사회공헌활동을 알리는 한편, 고객들에게 은행을 보다 친숙하게 소개하기 위한 지점 홍보영상 제작 경진대회에도 참여했다.

이날 해단식에서는 그동안의 활동을 돌아보고 우수활동팀으로 선정된 '전데이' 팀을 격려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오상근 기자

장례 위로에 감사 담아... 정읍 취약계층에 나눔

전주일보 하재훈 기자와 정읍 정심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하은주 이사가 아버지 장례에 전해진 위로에 보답하고자 남매의 이름으로 200만원을 기부했다.

두 사람은 지난 21일 정읍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각 100만원씩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했다.

이번 기부는 최근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웃과 지인들에게 받은 위로와 정성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례에 참석해 슬픔을 함께 나눠준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을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다시 돌려주자는 데 남매가 뜻을 모았다.

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정읍지역 저소득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복지를 높이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경찰서, '착!한운전' 행진 캠페인 개최

정읍경찰서(서장 강경남)는 24일 착!한운전 행진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은 정읍역 일대에서 정읍 터미널까지 350m를 행진하며 <안전띠 '착', 안전모 '착', 방향지시등 '착'> 교통안전 습관 정착의 일환으로 교통경찰, 모범운전자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행진과 함께 인근 보행자 및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홍보 물품을 배부했다. 이를 통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및 방향지시등 점등을 생활화하고 기존의 단속 중심에서 벗어나 운전자가 스스로 일상속에서 안전수칙을 실천하도록 홍보 활동을 펼쳤다.

강경남 서장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홍보와 계도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운전자가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착!한 운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공연 즐기기 어려운 이웃 위해 써주세요”

황주원 주원컴퍼니·노동진 리퍼니처 군산점 대표

아마존 DJ 워터 페스티벌 공연 티켓 500장 기탁

(주)주원컴퍼니 황주원 대표와 리퍼니처 군산점 대표가 지역 사회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황주원

두 대표는 최근 문화 공연을 쉽게 접하기 어려운 이웃들에게 특별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선물하기 위해 아마존 DJ 워터 페스티벌 문화 공연 티켓 500장을 사랑의 열매에 24일 기탁했다.

이번 나눔은 경제적·환경적 어려움으로 공연이나 문화생활을 즐기기 힘든 주민들에게 잠시나마 일상의 걱정을 내려놓고 즐거움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탁된 티켓은 기관의 추천 등을 통해 지역 내 문화소외계층과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황주원 대표는 “기업이 지역사회에서 받은 관심과 사랑을 다시 지역사회에 돌려드리는 것은 기업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많은 분들이 공연을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동진 대표도 “작은 나눔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오래 기억될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진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귀감이 되고 있다.

황주원 대표와 노동진 대표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 번의 기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이다.

문화는 특정한 사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 이번 티켓 500장이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공연 관람권이 아니라 삶의 고단함을 잠시 잊고 웃을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이 될 것이다.

작은 정성이 모여 큰 온기가 되듯, 두 대표가 보여준 따뜻한 문화 나눔이 지역사회 곳곳에 행복과 희망을 전하는 아름다운 나눔의 씨앗이 되고 있다.

/이만호기자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실천 위한 시민 의견 수렴

민주평통 전주, 3분기 정기회의… ‘평화통일 100만 국민 인터뷰’ 추진 현황 공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시협의회(협의회장 이강실 목사)는 24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여 동안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 유향검홀에서 자문위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3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김영복 전북협의회장을 비롯한 내외빈이 참석했으며, 이강실 전주시협의회장의 개회사와 최주만 전주시의회 의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보결 자문위원 위촉장 전수 및 소개, 제2 신흥관학교 제3기 졸업장 수여, 한반도 평화포럼 방안 세미나 교육 등이 진행됐다.



이어진 정책건의 및 의견수렴 시간에는 지난 2분기 통일 의견수렴 결과를 공유하고, 3분기 정책 주제인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실천을 위한 성찰과 대안을 모색했다. 참석 자문위원들은 분임별 토론을 통해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한반도 상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민주평통의 주요 역점사업인 ‘평화통일 100만 국민 인터뷰’ 추진 현황도 공유됐다.

전주시 협의회와 저조한 실적에 대해 전 협의회원이 적극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생각과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정책 건의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상반기 사업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주

요 사업계획과 공지사향 등을 논의하며 지역사회에서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고 자문위원들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 방향도 모색했다.

이강실 민주평통 전주시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자문위원들의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에 감사사를 표하고, “급변하는 국제적 현실 속에서 남북 간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평화와 통일을 모색하는 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적극적인 활동과 협력을 당부했다.

이번 3분기 정기회의는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평화와 공존을 위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고, 국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활동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만호 기자

지역 산림기술 역량 강화… 한국산림기술인회 전북지회 개소

전북특별자치도는 한국산림기술인회 전북지회가 전주에서 개소식을 갖고 지역 산림기술인의 전문성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진영문 한국산림기술인회장과 양정기 전북지회장을 비롯해 김인천 서부지방산림청장, 송경호 전북자치도 산림지원과장, 이대성 산림조합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전북지회 설립 경과보고와 임명장 수여, 주요 내빈 축사, 현판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

전북지회는 앞으로 지역 산림기술인들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맡는다. 산림기술인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등을 추진하고, 산림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현장 중심의 산림기술 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기술인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는 한편, 산림사업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는 지역 거점으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정기 한국산림기술인회 전북지회장은 “전북지회가 지역

산림기술인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소통하는 구심점이 되도록 하겠다”며 “기술인의 자질 향상과 권익 보호, 산림사업의 품질 제고를 위해 현장 중심의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설공단, 스마트 ‘쉽’ 아카데미 3기 참가자 모집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이 스마트 쉽 아카데미 3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공단은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보름간 스마트 쉽 아카데미 3기 참가자 신청을 접수한다. 모집 인원은 총 20명으로 전주에 사는 미취학 아동이 대상이다.

스마트 쉽 아카데미 3기는 다음 달 16일부터 12월 2일까지 3개월간 총 12차례 운영된다.

스마트 쉽 아카데미는 스마트기기 사용이 일상화된 아이들이 디지털기기 사용을 잠시 멈추고 체육과 독서 등 다양한

한 활동을 통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체험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아이들이 친구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 풋살교실 △놀이로 배우는 안전?생존수영 △독서 페스티벌 △스포츠 문화 현장 체험 △एको 플로깅 △자연 체험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공단은 지난해 처음으로 스마트 쉽 아카데미를 시작해 올해 상반기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 속에서 2기 운영을 마쳤다. /이만호 기자



전북 의료봉사단, 몽골 고비에 따뜻한 의료 손길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는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4박 6일간 몽골 우문고비주 달란자르가 드시를 찾아 현지 의료시설에서 지역 주민과 아동 905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펼쳐며 성공적인 의료 나눔을 실천했다.

의료봉사는 지난 2월 전북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의 의료장비 지원으로 문을 연 고비덴탈 2호점(전북특별자치도치과병원)과 고비덴탈 치과병원 등 2곳에서 진행됐다. 총 6개의 치과진료실과 치과기공실을 운영하며 틀니 제작과 치과진료를 실시하고, 올바른 치아 관리를 위한 구강보건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또한 에네팔린력개발센터(재활병원)에서는 4개의 한방진료실을 운영해 한의와 진료와 함께 테이핑요법 및 마사지 등을 활용한 통증관리 프로그램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는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펼쳤다.

의료봉사단은 단순한 진료를 넘어 의학적 경험과 전문적인 치료기법을 현지 의료진과 공유하는 의료세미나도 진행했다. 치과의사회는 근관치료·소아치과·임플란트, 치과위생사회는 소아·노인 구강위생관리, 한의사회는 초음파 유도 약침치료, 물리치료사회는 테이핑 기법 등을 주제로 분야별 교육을 실시했으며, 현지 의료진 138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 /이만호 기자



삼천3동 화재피해 어르신 화장실 리모델링

삼천3동(동장 김미경)은 화재로 주거공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공공 민간 자원을 연계하며 주거환경 회복에 힘쓰고 있다.

화재로 집 곳곳이 훼손된 어르신은 지붕과 창틀, 문, 싱크대 등을 수리, 교체하며 생활환경을 조금씩 회복해 왔지만, 화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낡고 그늘진 화장실은 여전히 큰 불편으로 남아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된 전주코디리클럽은 어르신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다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화장실 리모델링을 위해 300만원 상당을 지원했다.

특히 무더운 여름 화재로 삶의 공간을 잃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던 어르신에게 이번 후원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다시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건넨 따뜻한 희망이 됐다. /이만호 기자

남원 사매면, 제3차 지사협 회의 개최



남원시 사매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8월 20일, 면장실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3~4분기 특화사업 추진계획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방안, 2027년도 특화사업 아이디어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하반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행복드림 이불세탁 사업을 지속 추진과 추석을 앞두고 80세 이상 독거노인 10명에게 명절 식재료 등을 지원하는 한가위 북꾸러미 사업 추진을 의결했다.

또한 10월부터는 복지사각지대 12가구를 대상으로 ‘맞나맞나 밑반찬 배달’ 사업을 추진하고, 12월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40가구에 봉어빵 간식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행복드림 이불세탁’ 사업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불편사항이 논의되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조사 요청 가구에 대해서는 공적 지원 기준에 따라 사례관리 예산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 내 민간 복지사업과 연계해 구강 관리, 치과 치료를 연계하는 등 민간협력을 통한 지원 사례도 공유했다.

김식록 사매면장은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복지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살피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기자